

추석 명절 가정예배 모범

(이 예배는 집안의 어른이 인도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나 자녀 중에서 인도해도 됩니다.)

사도신경(새번역) 다 같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 송 사철에 봄바람 불어 잇고(559장) 다 같이

1. 사철에 봄바람 불어 잇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후렴]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2.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잇고
기쁨과 설움도 같이하니 한 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3.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기 도 가 족 중

- 지금까지 우리 가족을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에 감사
- 우리 가족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앞으로의 삶도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도록 간구
- 가족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며, 말과 행동으로 사랑을 나누는 가정이 되도록 간구

성경봉독 시편 65:11-12 인 도 자

- 11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 씩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 방울이 떨어지며
- 12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띠었나이다

말 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의 복 인 도 자

오늘 추석 명절을 맞아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음에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앞으로의 삶도 주님께 맡기는 우리 가족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 씩우시니” 이는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은혜로 한 해를 감싸고 완성하셨다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한 해를 돌아볼 때 결과를 가지고 판단하기 쉽습니다. 많이 이루었으면 성공한 한 해라고 생각하고, 뜻대로

되지 않으면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결과만 바라보지 않습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셨다는 사실을 우선적으로 바라봅니다.

올해 우리 가족에게도 기쁜 일이 있었고, 힘든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성취의 순간도 있었고 아쉬움의 순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을 지나 지금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하루를 살아갈 힘을 주신 것, 어려울 때 곁을 지켜준 가족이 있었던 것, 낙심했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지켜주신 것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어서 말씀합니다. “주의 길에는 기름 방울이 떨어지며” 여기서 기름은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하나님의 복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지나가신 자리에는 실제적인 은혜가 남는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 삶에 주어진 은혜의 기름 방울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간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 가족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만 머무르지 않고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와 같은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말이 지나간 자리에는 상처가 아니라 위로가 남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손길이 지나간 자리에는 부담이 아니라 도움이 남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만남이 지나간 자리에는 다툼이 아니라 기쁨과 평안이 남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이번 추석에는 얼마나 많이 거두었는가보다 누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기 바랍니다. 지나온 모든 시간을 돌보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각 가족에게, 그리고 이웃에게 나누며 살아갑시다. 하나님께서 지나가신 자리에 은혜의 흔적이 남았듯이, 우리 가족이 지나가는 자리마다 사랑과 위로와 감사가 남는 멋진 가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마르지 않는 은혜의 샘터 같은 복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찬 송 **지금까지 지내온 것(301장)** 다 갈 이

1.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 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피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2.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3. 주님 다시 뵈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벼를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주기도문(새번역) 다 갈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